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푸젠성 취안저우시, 상반기 GDP 성장률 전국 1위 달성

- 최근 중국 주요 도시에서 연이어 2024년 상반기 GDP를 발표, 이 중 17개 도시의 GDP 성장률이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
- 상반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5.0%이며, 푸젠성 취안저우(泉州)시는 6.7%로 전국 1위를 차지. 그 외 장쑤성 쑤저우, 충칭시, 푸젠성 푸저우시도 6%를 상회
- 안후이성 허페이시, 선전시, 허난성 정저우시, 광둥성 둥관시 등 4개 도시의 규모 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10% 이상에 달함
 - 선전시의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부가가치는 17.0% 성장, 하이테크 제품 중 3D 프린터 설비, 서비스 로봇, 전자부품 생산량은 각각 83.3%, 37.6%, 29.1% 증가
- 교역액을 살펴보면 선전시의 상반기 교역액은 상하이시를 넘어서며 전국 1위를 달성, 항저우시의 교역액은 톈진시를 추월, 장쑤성 난통시와 안후이성 허페이시 교역액은 후베이성 우한시를 추월, 취안저우시의 교역액 증가율은 26.7%로 선전시(31.7%)의 뒤를 이음

〈중국 주요 도시의 2024년 상반기 GDP 현황〉

도시명	GDP (억 위안)	GDP 성장률(%)	도시명	GDP (억 위안)	GDP 성장률(%)
상하이	22,346	4.8	장쑤성 우시	7,437	5.9
베이징	21,791	5.4	허난성 정저우	7,252	5.3
광둥성 선전	17,302	5.9	후난성 창사	7,170	4.5
충칭	15,138	6.1	장쑤성 난통	6,287	5.8
광둥성 광저우	14,298	2.5	산둥성 지난	6,144	5.3
장쑤성 쑤저우	12,059	6.2	안후이성 허페이	6,135	5.5
쓰촨성 청두	11,152	4.8	광둥성 포산	6,123	1.7
저장성 항저우	10,137	4.8	푸젠성 푸저우	6,122	6.2
후베이성 우한	9,975	5.3	푸젠성 취안저우	5,925	6.7
장쑤성 난징	8,607	4.4	산시성 시안	5,718	2.2
저장성 닝보	8,208	5.4	광둥성 둥관	5,687	5.3

*출처 : 국가통계국, 지역별 통계국

자료원 : 신경보

<https://baijiahao.baidu.com/s?id=1807963241585716301&wfr=spider&for=pc>

2 中, 올해 '투자 중국' 브랜드 구축 지속

- 중국 국무원은 8월 26일 개최한 '제24회 중국 국제투자무역상담회(9/8~11, 푸젠성 푸저우 시)' 사전 브리핑에서 상담회 기간 '투자 중국' 매칭상담 구역(13,000m²)을 구성하여 다국적회사 및 글로벌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 '투자 중국' 매칭상담회는 신질적 생산력, 인공지능, 스마트제조, 건강, 녹색·저탄소 등 산업 위주로 국내외 금융기관, 우수 중소기업, 국가급 경제개발구가 참가하여 로드쇼, 매칭상담회, 설명회 등 행사를 개최할 예정
- 현재까지 20여 개 글로벌 금융기관과 영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미국, 싱가포르 등 국가·지역의 100여 개 중소기업 및 프로젝트, 10여 개 국가급 경제개발구가 참가를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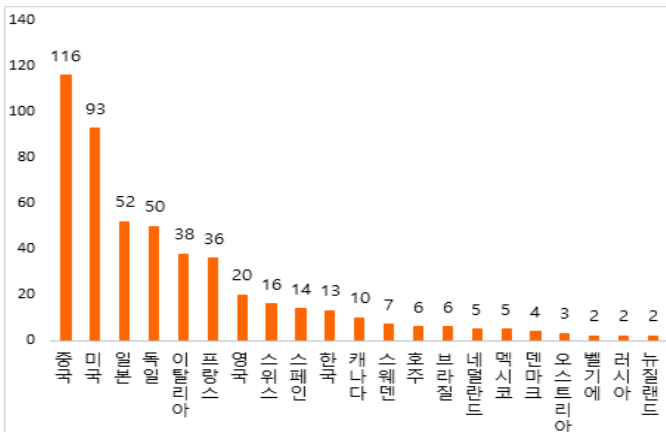
자료원 : 중신징웨이(中新经纬)

<http://www.jwview.com/jingwei/html/08-26/604976.shtml>

3 中 아이메이컨설팅, '글로벌 500대 소비재 브랜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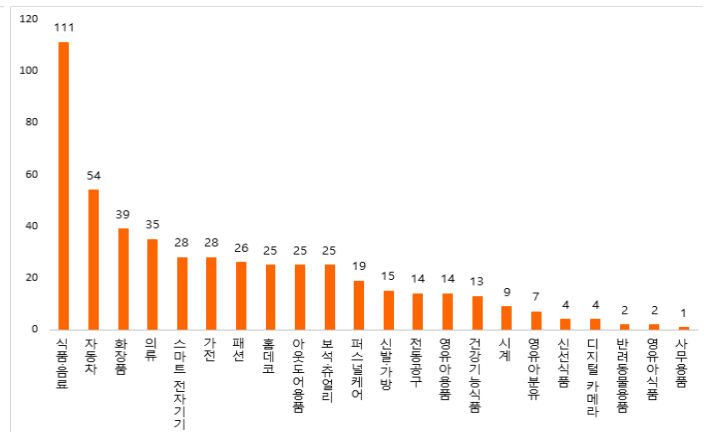
- 중국 리서치회사 아이메이(艾媒)컨설팅은 최근 '2024년 글로벌 500대 소비재 브랜드'를 발표, 이 중 중국 브랜드는 116개로 전체의 23.2%를 차지, 미국, 일본 브랜드는 각각 93개, 52개로 집계
- 500대 소비재 브랜드는 화장품, 식음료품, 영유아용품, 신발·가방, 가전제품, 홈데코, 패션, 전자제품, 반려동물용품, 아웃도어용품 등 22개 분야에서 선정
- 식품·음료 분야는 네슬레, 펄시콜라 등 111개 브랜드, 자동차 분야는 폭스바겐, 도요타, 오펜 등 54개 브랜드, 화장품 분야는 질레트, 로레알, 랑콤 등 39개 브랜드가 선정됨

〈2024년 국가별 글로벌 500대 소비재 브랜드 수(단위 : 개)〉



*출처 : iiMedia Ranking

〈2024년 품목별 글로벌 500대 소비재 브랜드 수(단위 : 개)〉



*출처 : iiMedia Ranking

자료원 : 아이메이컨설팅

<https://www.163.com/dy/article/JA3U5L7N0511A1Q1.html>

4 中, 휴머노이드 로봇 응용 가속화

- 국제로봇협회는 2021~2030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시장 연평균 성장률을 71%로 예측, 중국전자학회는 2030년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규모를 8,700억 위안으로 추산
- 공업정보화부는 2023년 10월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발전 지도의견'을 발표, 향후 3~5년간 3C 전자제품, 자동차, 의료, 가사서비스 등 분야의 휴머노이드 로봇 활용 강조. 저장성, 광둥성, 베이징시, 청두시 등지는 혁신센터를 설립하는 등 해당 산업 발전에 박차
- 한편 기업들의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이 가속화 추세로, 유비택(优必选)의 자동차 타이어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 'Walker S'는 지리(吉利), 홍치(红旗), 아우디(奥迪) 등 자동차 공장에서 테스트를 시작함
 - 테슬라는 내년 휴머노이드 로봇을 소량 생산하고 1,000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도입할 계획을 밝힘. 위수테크놀로지(宇树科技)는 니오(蔚来) 등 자동차회사와 협력하여 공장에 운반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함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jjckb.xinhuanet.com/20240823/09f9f78285ca4ec4a17b20544794351f/c.html>

5 中, 자율주행차 시장 빠른 성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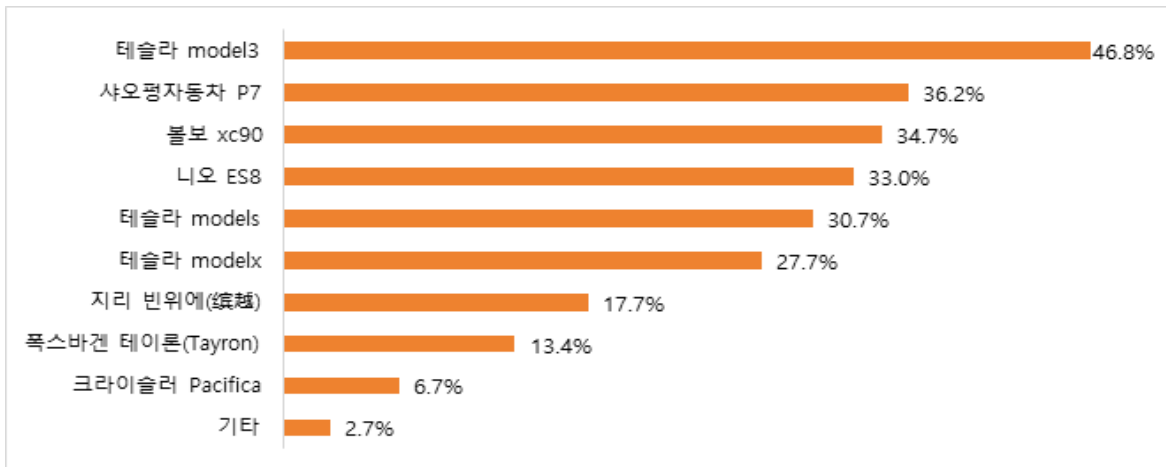
- 중국 리서치회사 아이메이(艾媒)컨설팅에 따르면 중국의 자율주행차 시장규모는 2023년 119억 위안에서 2029년 1,207억 위안으로 성장 전망
- 현재 중국 내 자율주행 분야 기업은 총 1,782개 사로, 주로 인터넷·하이테크기업, 완성차 제조업체, 스타트업 등임. 등록자본금 1,000만 위안 이상이 43.2%로 대기업 위주

〈중국 자율주행차 업계 현황〉

기업 유형	기업명	자율주행 시스템/칩	핵심기술/부품	테스트/운영도시
인터넷/하이테크 기업	바이두(百度)	클라우드 기반 올인원 AI 칩	시각 센서, 고정밀 지도, 알고리즘, 자체 개발 칩, 자율주행 플랫폼 등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창사, 창저우
	디디(滴滴)	엔비디아 자율주행 칩	지능형 주행 시스템, 지능형 시각 감지시스템 등	상하이
	화웨이(华为)	MDC810 칩	광선레이더, 고정밀 지도, 알고리즘, 자체 개발 칩	베이징, 상하이, 충칭
완성차 제조업체	니오(蔚来)	선지(神玑) NX9031	자체 개발 칩, 시스템, 알고리즘, 데이터 등	캘리포니아, 베이징, 상하이
	샤오펑자동차(小鹏汽车)	엔비디아 Orin 칩	지능형 주행 보조 시스템, 고정밀 지도 등	선전, 둥관, 광저우
	지리(吉利)	스마트 콕핏 칩 SE1000	자체 개발 운영 플랫폼, 컴퓨팅 플랫폼, 칩	항저우
스타트업	AutoX	자율주행 시스템 AutoXGen5	자체 개발한 무인 시스템 AutoXGen5, 핵심 차량용 슈퍼컴퓨팅 플랫폼	선전, 상하이, 광저우
	샤오마즈싱(小马智行)	엔비디아 DRIVE Orin 시스템 온 칩	자체 개발한 신호등 인식 카메라, 컴퓨팅 유닛, 도메인 컨트롤러	캘리포니아, 광저우, 베이징, 상하이
	원위안즈싱(文远知行)	NVIDIA DRIVE Orin(SoC)시스템 온 칩	고정밀 지도, 알고리즘, 자체 개발 칩, 자율주행 플랫폼 등	광저우

- 조사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의 무인운전 자동차에 대한 인지도는 테슬라 model3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샤오펑 P7로 나타남

〈중국 소비자의 자율주행차 브랜드 모델에 대한 인지도〉



*출처 : 아이메이 데이터센터(조사대상자 1,682명, 조사시간 2024년 1월)

자료원 : 아이메이(艾媒)컨설팅

<https://www.iimedia.cn/c400/101515.html>

6 中, 2027년 실버산업 시장규모 20조 위안 예상

- 2023년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억 1,709만 명으로 집계, 노인 인구의 증가는 중장년 의류, 건강기능식품, 가사서비스, 가정용 의료기기 등 시장의 성장을 견인
- 아이메이(艾媒)컨설팅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실버산업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6.5% 성장한 12조 위안, 2024년 시장규모는 13.9조 위안, 2027년 20조 위안으로 전망
- 2023년 중장년 의류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0.0% 성장한 1,581억 위안이며, 2025년 2,000억 위안으로 성장 예상, 일부 패션 브랜드는 중장년 의류 출시 확대
- 2023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9.8% 성장한 3,282억 위안이며, 2027년 4,237억 위안으로 성장 전망.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23년 1,981억 위안에서 2024년 2,400억 위안으로 성장 예상
- 가사서비스 시장규모는 2015년의 2,776억 위안에서 2021년 1조 149억 위안, 2023년 1조 1,641억 위안으로 성장, 2026년 1조 3,000억 위안에 이를 전망

자료원 : 아이메이(艾媒)컨설팅

<https://www.iimedia.cn/c400/101206.html>

7 中, 지황 등 4개 품목 ‘식품·한약재 목록’에 포함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은 8월 26일 공고를 발표하여 ‘식품·한약재(中药材)로 사용 가능한 품목 목록’에 ‘지황(地黄)’, ‘맥문동(麦冬)’, ‘천문동(天冬)’, ‘화굴홍(化橘红)’ 등 4개 품목을 포함
- 상기 품목은 적정량을 식용 가능하지만 임산부, 모유기의 여성, 영유아 등은 식용을 비추천
-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시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 한약재로 사용 시 한약재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함

〈식품·한약재로 사용 가능한 지황 등 4개 품목〉

지황(地黄)	맥문동(麦冬)	천문동(天冬)	화굴홍(化橘红)
			
지황은 생정익수(生精益髓), 활혈지혈(活血止血), 생혈(生血) 등 효능 보유	맥문동은 양음윤폐(养阴润肺), 청심제번(清心除烦), 양위생진(养胃生津) 등 효능 보유	천문동은 자음윤조(滋阴润燥), 청폐생진(清肺生津) 등 효능 보유	화굴홍은 광둥성 화주시(化州) 특산품, 기관지염, 목가래 치료 효능 보유

자료원 : CCTV망

<https://baijiahao.baidu.com/s?id=1808430379343355151&wfr=spider&for=pc>

8 中, ‘순환경제’ 시장 빠른 성장세

- 중국 국무원은 ‘경제사회 발전 녹색전환 가속화 의견’을 발표, 2035년까지 녹색 저탄소 순환 발전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자원 순환이용 산업’을 발전시키며, 2030년 고체폐기물 연간 이용량을 45억 톤으로 제고할 것을 강조
- 올해 3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 방안’에서도 ‘폐기물 회수 순환이용’을 4대 실시방안 중 하나로 제시. 산업, 교통, 에너지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정 중임
- 2월 발표한 ‘폐기물 순환이용 체계 구축 가속화 의견’에 따르면 중국의 자원 순환이용 산업 규모는 2025년 5조 위안에 도달할 전망. 인허(银河)증권에서는 향후 금속폐기물 재활용, 재생플라스틱, 리튬배터리 재활용 등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분석
- 기업정보 플랫폼인 텐엔차(天眼查)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순환경제’ 관련 기업은 270만 개사로, 올해 1~8월에만 61만 개사가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34%에 달함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jjckb.xinhuanet.com/20240827/62467f28998945ba86c6437730d1983e/c.html>